

# -노라고

나름대로 애썼지만 ...

진심으로 노력했음을 내세운 뒤 결과가 모자랐음을 인정합니다. 다음과 혼동하기 쉽지만 -노라고 전혀 다른 어미입니다.

## ■ 결합 방법

| 상황         | 형태     | 예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동작 동사      | -노라고   | 하다 → 하노라고    |
| ㄹ 받침       | ㄹ 탈락   | 만들다 → 만드노라고  |
| 주어         | 1인칭    | 자신의 노력       |
| 뒤 절        | 부족함    | 결과가 신통치 않다   |
| 시제를 붙이지 않음 | 기본 어간만 | 했노라고 — 다른 구문 |
| 다른 어미      | -노라고   | 일하노라고 못 갔어요  |

## ■ 언제 쓰나요

동작 동사 어간에 -노라고를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, 앞에서 ㄹ이 탈락하며, 앞에 시제가 붙지 않습니다.

주어는 보통 1인칭입니다. 자신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: 하노라고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다 — 할 수 있는 만큼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.

뒤 절에는 반드시 부족함이 나타나야 합니다. 이것이 핵심입니다. 노력은 진짜였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.

다음 틀이 흔하며, -노라고 한 것이하노라고 하다는 관용 표현에 가깝습니다.

## ■ 예문

- 1 하노라고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.
- 2 준비하노라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.
- 3 돕노라고 나선 일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.
- 4 쓰노라고 쓴 글이 이 모양입니다.
- 5 직접 만드노라고 애썼지만 시간이 모자랐다.
- 6 아끼노라고 아꼈는데도 살림은 늘 빠듯했다.

## ■ 비교

**-노라고**  
꼭 구별해야 할 짝입니다. -노라고는 어떤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 다른 일을 못 했다는 뜻이고, -노라고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러웠다는 뜻입니다.

일하노라고 못 갔어요. (일하느라 바빴다) / 하노라고 했는데 부족하다. (애썼지만 모자랐다)

**-고도**  
-고도는 말면서도 다르게 행동한 것을 흔히 비판적으로 지적하고, -노라고는 자신의 노력을 겸손하게 낮추어 말합니다.

알고도 말 안 했다. (말면서도 말하지 않았다) / 하노라고 했지만 모자랐다. (애썼지만 모자랐다)

**나름대로**  
같은 내용을 일상적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. 나름대로 했는데는 예스러운 어미 없이 노력을 변호합니다.

나름대로 했는데 부족했어요. (구어) / 하노라고 했지만 부족했다. (문어)

## ■ 주의

- ✗ 일하노라고 모임에 못 갔어요.
- 일하노라고 모임에 못 갔어요.  
어떤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었다고 말할 때는 -노라고를 씁니다. -노라고는 애썼지만 모자랐다는 뜻입니다.
- ✗ 하노라고 했더니 결과가 훌륭했다.
- 하노라고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다.  
뒤 절에는 부족함이 나타나야 합니다. 결과가 좋으면 이 어미를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.
- ✗ 그 사람은 하노라고 했지만 부족했다.
- 저는 하노라고 했지만 부족했습니다.  
주어는 보통 말하는 사람입니다. 다른 사람의 노력은 속사정까지 보증할 수 없으므로 어색하게 들립니다.